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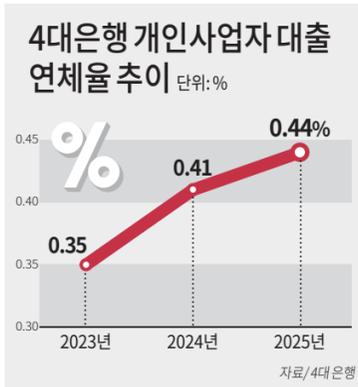
연체액 2년새 26% ↑... 개인사업자, 이자부담 더 커진다

개인사업자 은행 대출잔액 267조 중 연체액 1.2조, 연체율 0.44% 집계 3고 장기화에 내수경기 부진 영향 대출심사 강화에 자금조달 어려워

개인사업자들의 연체액이 최근 2년새 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금리 또한 오르고 있어 개인사업자의 이자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66조 9235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연체액은 1조 1618억원으로 연체율은 0.44%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4년 말 0.41%에서 0.44%로 0.03% 포인트(P) 올랐다. 2년 전(0.35%)과 비교하면 0.09%P 상승했다.

2023년 말 266조 185억원이었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까지 늘어

나서 동안 연체액이 9221억원에서 1조 1618억원으로 26%가량 급증한 결과다.

연체율이 오르는 이유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현상이 장기화된 데다 내수경기까지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영업환경이 장기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의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이자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2025 보증이용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2.4%가 2024년에 비해 2025년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답했다.

자금 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7점 척도)으로는 '경제 불확실성 증가(5.91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물가 상승(5.86점)', '판매·매출

감소(5.58점)' 순이었다.

여기에 은행권의 대출 심사 강화로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차환이나 추가 대출이 막히면서 자금 압박이 심화되고, 이는 다시 연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 금리는 4.55~6.18%였다. 지난해 10월 4.41~5.8%와 비교하면 3개월 새 하단이 0.14%p, 상단은 0.38%p 올랐다.

개인사업자들은 이러한 경영환경과 자금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 대비 올해 자금 사정도 '악화'를 예상한 개인사업자는 57.2%

로 가장 높았고, '동일(28.7%)', '윤택(14.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업종을 통틀어서 자금 사정 전망 점수는 3점 이하를 기록했다.

올해 자금 사정 악화 이유(7점 척도) 역시 '경제 불확실성 증가'가 6.02점으로 가장 컸고, '물가 상승(5.93점)', '금융 비용 증가(5.68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시장금리가 다시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매출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금융 비용까지 늘어나면 개인사업자의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차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연체율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카드 News

신한카드-신세계백 오메이징 카드 페스타

신한카드는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제휴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내달 2일까지 '오메이징 카드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명품·패션·잡화 단일 브랜드 결제 건에 대해 최대 7% 신세계백화점 포인트(이하 신백리워드)를 증정한다.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70만 리워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은 금액은 신세계백화점 점포별로 상이하다.

제휴카드로 결제 시 신백리워드 쿠폰 팩도 제공한다. ▲위치·주얼리 브랜드 3만원 할인권 ▲패션 브랜드 3만원 할인권 ▲리빙 브랜드 3만원 할인권이 포함된 쿠폰팩을 신세계백화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급한다. 단일 브랜드에서 최소 금액 이상 결제 시 할인이 적용된다.

신세계 신한카드 베스트 핏(Best Fit), 신세계 신한카드 계열 등 신세계백화점 제휴 신한카드는 모두 행사 대상에 해당한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3%대 회복 '자금유치 올인'

안양·SBI·애뮤온 등 3%대 금리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탈 방어 나서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12개월물)가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주식 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저축은행 수신고가 줄어들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예금 유치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정기예금 평균금리(12개월 기준)는 3.02%다. 지난해 말 2%대로 떨어졌다가 지난 12일 3%대로 재진입한 것이다.

대표적인 저축은행인 고금리 정기예금으로는 안양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이 있다. 최고 3.50%의 금리를 제공하며 가입 기간은 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다. 예치금액은 10만원 이상부터 가능하다.

SBI저축은행 역시 최고 연 3.30%의 예금 상품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최고 3.30% 금리를 제공하는 애뮤온저축은행의 '처음만남예금', 최고 3.26%의 머스트샵저축은행의 'e-정기예금', 'e-회전식정기예금' 상품 등이 높은 금리의 정기예금으로 분류된다.

앞서 저축은행들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규모를 축소해 왔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중금리대출까지 축소했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3조 3785억원으로, 상반기(5조 4891억원)보다 2조 1106억원(38.5%) 줄어 들었다.

대출 조이는 수신 규모 축소로 이

어졌다. 대출 규모 축소로 이자 수익이 줄어든 은행들이 수신 경쟁을 강화할 유인이 사라진 것이다. 결국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말 예금 금리를 내리면서 소극적인 수신 영업 활동을 지속해 왔다.

업계에서는 다시 예금금리가 오른 것을 두고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올해 처음 코스피가 5000을 넘어서면서 국내 증시 불장이 지속되자, 은행 예금을 이용해 자산을 운용하기보다 주식 투자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수신고가 99조원을 기록하며 100조원대를 하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대출 조이기, 증시

활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자금이 이탈하고, 외형이 축소되자 예금 금리를 올려 기존 고객 방어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다만, 공격적인 수신 경쟁은 제한적일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부채 관리 규제에 따른 대출 규모의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 활황으로 주식시장으로 고객 자금이 빠지자 1은행권, 지방은행, 저축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고객 잡기에 나서는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출 규모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수신 확대 경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KB금융, 청년 스타트업 발굴·육성 나서

찾아가는 KB스타터스 설명회 개최 서울대 시작으로 주요대 순차적 진행

KB금융그룹은 지난 20일 창업 중심의 일자리 혁신으로 성장의 온기를 중소기업·지방·청년까지 확산하고자 서울대학교에서 '찾아가는 KB스타터스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KB스타터스는 2015년부터 시작된 금융권 최초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KB금융은 정부·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인재들을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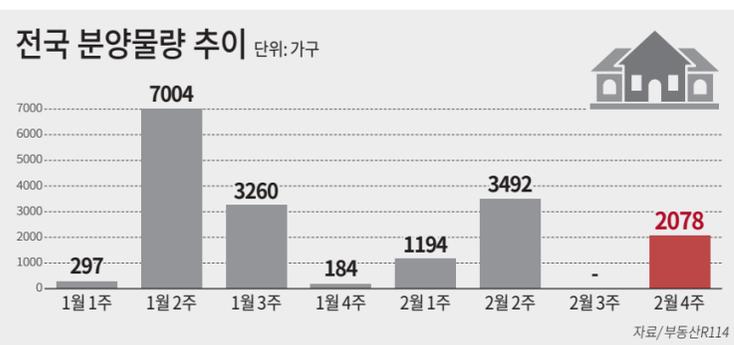
설명회는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서울 주요 대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주요 참석 대상은 대학(원)생 창업자, 교내 창업 동아리, 그리고 각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등이며,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KB금융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KB스타터스' 소개

▲KB금융 계열사와의 주요 협업 사례 공유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질의응답(Q&A) 등 'KB스타터스' 지원을 위해 창업가들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KB금융은 현재 진행 중인 '2026년 상반기 KB스타터스' 모집 기간에 맞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이번 서울 주요 대학 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수도권과 지방 거점 대학으로 설명회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우수 청년 창업가들에게도 KB금융의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대학교·청년 창업 생태계는 미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열정 넘치는 청년 창업가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들이 KB금융과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 등 4개 단지 분양

분양 캘린더

총 2078가구 중 605가구 일반분양

2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07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605가구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경기 부천시 괴안동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과 경기 양주시 삼성동 '더플래티넘센트럴포레', 부산 금정구 장전동 '금정산하늘채루미엘'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쌍용건설은 경기 부천시 괴안동 일

원에서 괴안3D구역을 재개발한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759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23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7호선 온수역 역세권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구리시 수택동 '구리역하이니티리버파크'와 충남 천안시 성성동 '천안아이파크시티5·6단지' 등 6곳이 오픈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천안 서북구 성성동 60·9번지(5단지), 39·7번지(6단지) 일원에 '천안아이파크시티5·6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국민카드 '올 유 니드' 광고 공개

KB국민카드가 '올 유 니드(ALL YOU NEED)' 광고 캠페인의 상품편 광고 영상 세 편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가대표'로 발탁된 배우 김우빈이 스포츠 경기를 직접 뛰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브랜드 론칭편에서 제시된 '국가대표의 세 가지 킷'을 바탕으로, 각 카드의 혜택을 스포츠 경기 상황에 빚대어 표현했다.

'KB 올(ALL) 카드' 광고에서는 국내 가맹점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의 특성을 반영해, 김우빈이 농구 경기 공수 양면에서 활약하는 올라운드 선수로 등장한다.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경기를 이끄는 모습은 일상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올 카드의 '국가대표급 커버력'을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22일 "상품편 광고는 카드별 혜택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포츠 경기라는 장치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